



3면

국정원 "다에 '월북' 단어 들어가 있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음 10월 3일) 제3127호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확정

기재부 국가재정사업평가위 심의 통과

1조554억원 투자... 부안 하서서 동서도로까지 20.7km

관광레저용지·국제협력용지 개발 위한 접근로 확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해 새만금 남측 핵심지역인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8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국가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에서부터 잭퍼리부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7공구), 순환링, 국제협력용지를 경유하여 새만금 내부 십자간선망인 동서도로까지 20.7km에 총 1조554억원을 투자해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세번의 도전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관광레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9개의 공공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개발속도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위한 접근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 공간 제공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2019년 순환링 건설, 2020년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두차례에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성이 부족하고 국고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민간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차공과 정주형 테마마을, 해양레저복합단지 등 관광레저용지에 건설예정인 민간투자 상황을 고려해 지역간 연결

도로 건설 시급성을 어필한 결과 지난해 4월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새만금청과 협력해 KDI, 기재부를 끊임없이 방문 설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후 기재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 동원해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최초 요구 사업비 보다 1,363억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전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청과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에 추진에 만전을 기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재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 통과로 미반영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관련,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도로건설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접근로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뒤이어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도시개발을 위한 필수 공급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되며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안심하고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조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확정은 관계기관과 주변의 도움과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도민과 국회의원, 도의원, 새만금청, 기재부 그리고 지역 언론 등에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2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1조원 규모,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통과 확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독립영화제 개막 6일간의 영화 대장정

개막작은 '부유' 등 2편

전북독립영화제가 28일부터 6일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 전북독립영화제는 '감잡이쓰'를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2년 넘게 지속돼온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지금, 다시 상승의 에너지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결기를 담은 것이다.

공식 포스터는 가을에 열리는 과일인 '감'을 잡는 모습으로, 상처 입은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 없이 도전한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함께 떨어진 '감'을 주워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은 28일 오후 7시 씨네Q 전주 영화의거리점에서 열렸다. 이후부터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을 메인 상영관으로, 베니키아 전주한성호텔 2층을 제2상영관으로 운영해 보다 다양한 영화를 제공한다.

개막작은 총 2편으로 전북독립영화 제작사를 13기 제작지원작인 태자경 감독의 '부유'와 박현준 감독의 '높은 마음'이 상영된다. /뉴시스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공공주도로 조기 매립을”

2022 새만금 정책포럼... 식품 특화항·단지, 국가 곡물비축기지 개발 등 제안

전북도는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발굴·논의를 위해 28일 서울에서 2022년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남궁근위원장(前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포럼 위원과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인물류 특화단지 조성 △공공주도로 매립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 △신항만 등복아 허브 구축에 대한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가공·물류거점으로 개발되는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새만금 신항 개항, 수산가공 복합단지 등 전북의 강점과 매력적인 새만금의 입지를 연계해 새만금을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기술이 집결된 국가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주도로 조속한 토지 공급과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권역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인수 재정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식품 특화항이자 식품특화단지로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곡물비축기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신항만 6선석을 최대한 조기 완공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국가차원에서 동북아 식품 허브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위원들은 새만금 신항만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항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신항만이 2025년에 개항됨에도 물류거점인 항만경제특구가 2030년 매립 계획으로 되어 있어, 신항만 개발 속

도와 연박자가 나고 있다"며, "이는 공공주도로 반드시 조기 매립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 신항만 공기 단축과 국가물류체인 구축 등 식품허브 선점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라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 다뤄진 식품 허브 구축 등은 농식품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간 농식품부 차관 등 30여 년의 행정 경험을 살려 새만금에 접목할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희망이자 국가의 미래인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시점이며, 전북도와 관계부처, 정책포럼이 중심이 돼 함께 성공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신선한 우리 먹거리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우리 농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농협”

‘같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농협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NH농협 무주군지부
무주농업협동조합
구천동농업협동조합

자연의 나라 무주

자연과 생명의 등불, 반딧불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무주 반딧불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

NH 농협